

경제

2012 새해에는

6 송기진 광주은행장

“당기순익 5% 지역사회 환원”

“지난해 국내외 금융위기 속에서 임직원의 노력이 노력으로 역대 최대 1300억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것을 바탕으로 올 해는 건전성 제고와 강한 체력기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의 수장을 맡은지 4년 차에 접어든 송기진 행장은 그동안 쉽지 않았던 도전과제를 만들어낸 확고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체중 늘리기 보다 내실경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실제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송행장 부임 후 1000억원대였던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1300억원 이상 시현해 'High Earning Surprise'를 달성하는 경영성과를 거뒀다. 특히 은행구조조정을 우량하게 바꾸는 체질개선을 통해 광주은행 자산의 질을 대폭 확보했다.

이와 함께 송 행장은 올해 서울 지역의 영업력 강화를 통해 세계 초우량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사 다지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 행장은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초사다지기는 재임기간 중 이뤄내야 할 숙제다”며 “올 국내의 실물 경기 침체로 자산건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정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Think Tank)인 ‘금융경제 연구실’을 신설해 철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 제고



서울지역 영업력 강화 일자리창출 증기 지원

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올 해의 화두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송 행장은 “광주은행은 전국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국을 만들었으며 올해 역시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 전담 임원제 실시와 사회공헌국을 본부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을 선도하고 있다”며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공생경영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 행장은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최초 지역 특성화고 출신 20명을 채용해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나섰으며 올해도 역시 더 많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송 행장은 “실물과 금융은 동시 성장하는 것이고 금융의 역할은 제조업 중심의 실물을 적극 지원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첫 영업일 하남산단 소재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2012년 지역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하는 지역중소기업과 호남권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 노사협력과 임직원의 우수성을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 3년연속 최우수 펀드판매사 선정과, 노사협력 국무총리 표창의 영광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 캐치프레이즈를 ‘진정한 은행, 상냥한 은행원’으로 삼고 고객만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송 행장은 “건강한 체질개선을 이룬 광주은행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몸을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고객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체크카드로 소비습관 바로 잡아라”

권혁세 금감원장, 대학생과 솔직 대담 ‘금융토크’

“대학생 때부터 신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자기 분수에 맞는 소비습관을 길러야 결핵해서 살릴 수 있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권혁세 금감원장)

“돈 벌어야 할 곳에 가서 벌어야지 투기는 안된다. 지금은 많은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은퇴 후 설계를 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다.”(최현배 미래에셋증권 수석부

회장) 12일 오후 3시30분 전남대 경영대2호관 소강당 ‘금융인과 함께하는 캠퍼스 금융토크’ 현장. 강당 좌석 200석은 물론 통로 바닥, 입구 등에는 300여 학생들로 빼곡했다. 그야말로 입학의 여지가 없었다. 복도에는 뒤늦게 ‘금융토크현장’을 찾은 100여명이 아쉬운 발걸음을 들렸다.

금융감독원과 전남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금융토크에는 권혁세 금감원

장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전남대 출신 최현배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김해경 광주은행 영업본부장, 정일혁 삼성생명 사원 등이 참여해 후배들에게 금융에 대한 조언을 했다. 또 전홍철 국민은행 인사팀장은 금융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권 원장은 “대학생들이 올바른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금융 지식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의 금융정책과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저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설명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반월가 시위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이 상생의 관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사회공헌기금을 확대하고 전담인력 등을 늘려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경 본부장은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철학, 지역 내 공동체의식, 예측가능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권 원장은 “1998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창업하면서 급증하게 됐다”며 “금리부담을 내리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을 늘려 빛이 늘어나는 속도를 잡으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 해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빛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권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 토론에서 이혜성(전남대 경제학부 4년) 씨는 정부의 금융권 배당 억제와 관련 “관치금융이 아니냐”고 따지는 등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FX마진(외환차익) 거래시장 등에 대해 솔직 대담한 토론을 했다.

한편, 권 원장은 ‘금융토크’에 앞서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융감독원과 전남대가 공동 주최한 ‘금융인과 함께하는 캠퍼스 금융토크’가 12일 오후 지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전남대 경영대2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금융토크에서 권혁세 금감원장 등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예금 크게 늘어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1년 11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2449억원→+1조399억원)됐다. 예금은행(+1505억원→+6800억원)은 기업과 지자체의 자금유입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944억원→+3239억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이탈자금이 재유입됨에 따라 각각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7645억원→+5358억원)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가세 민원 애로 청취

서국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2일 오후 광주세무서를 방문, 부가기치세 신고창구에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작년 광주권 구직급여 신청자 크게 줄어

2만8240명 신청 12% 감소
지급액도 1051억 9.9% ↓

지난해 광주권에서 구직급여 신청자와 급여 지급액 등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가 관내 2011년도 구직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직급여 신청자는 2만8204명으로 전년도보다 12.5%(40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자 수는 3만6021명으로 전년도보다 8.2%(3202명), 구직급여 지급액은 1051억원으로 9.9%(115억원) 각각 줄어 들었다.

지난해 12월 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도 2183명으로 전년도 12월보다 14.8%(38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한달 동안 모두 9157명에게 71억원의 구직급여를 지급, 전년 동기 대비 지급자 수는 13.5%(1428명), 지급액은 17.4%(15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구직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이 상승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고용센터 관내 구직급여 신청자의 재취업률은 27.9%로 2010년도 25.5%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광주고용센터의 관할 구역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의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구례, 곡성, 함평, 영광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고용센터 정희성 감독관은 “지난해 구직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

액 등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찾지 못하다”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상승도 하나의 영향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64.57 (+19.02)
코스닥지수	520.34 (+1.76)
금리 (국고채 3년)	3.38% (0.00)
원·달러 환율	1,158.20원 (-0.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증-359호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이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좌절 경험후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제되어 발생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늪”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살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경희한의원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울증 원인

- (1)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 (2)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 (3) 정신적 원인
 - ① 사려 과다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행이 지체되거나 습열·식담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기 된다.
 - ②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때, 즉 욕구불만이 쌓일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우울증 증상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3.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4.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어나 과다한 수면
6.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울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중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은담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치료로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갈,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화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카터가

화정동 주매은행추선화관
◀송정리 ▶ 동고개 ▶
경희한의원 중앙병원